6·25 마흔돌에 부치는 提議

● 柳 俊 馨/韓國防衛産業振興會 상 근 부 회 장

1천만 離散가족의 슬픔과 함께 우리민족에 크나큰 아픔을 전해주었던 6·25동란이 발발한 것이 어젠듯 하건만, 벌써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민족사적인 발자취로 살펴보더라도 세계 전쟁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인 民族相殘의 처절한 이 전쟁은, 光復의 기쁨과 함께 분단의 벽을 체험해야 하는 상반된 어려움을 몰고 왔으며, 반만년 우리 역사에 실로 심각한 파괴적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볼때 일본, 북경, 블라디보스톡의 중간에 위치하여 미국이나'일본, 중국 및 소련의 세력이 겹쳐지게 됨으로써, 동북아시아 안정의 핵심이 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볼때 한국전쟁은 물론 러·일 전쟁이나 중·일 전쟁등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균형이 무너질때 발생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에서는 미국과 소련등 동서간의 새로운 화해분위기와 함께 태평양시대의 도래에 즈음하여, 표면적으로는 美·蘇를 비롯한 주변4강의 긴장완화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기존의 전략적 잇점을 유지하려는 근본적인 입장에 따라 불안정이 내재하고 있는 이중적인 특성을 띄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상황하에서 소련의 對북한 군사적 밀착관계의 심화, 중국과 소련의 북한에 대한 지원 및 협력, 그리고 북한의 공격적인 군사력과 내부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불안요소들을 고려할때 우리의 안보적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최근의 각종 내외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침투공격용 소형잠수함과 신형 Styx 대함미사일, 스커드-B 지대지미사일, Silk Worm 지대함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세계 제3위의 화학전 능력 보유와 함께 핵무기 생산능력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우리를 경악하게 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북한은 1987년부터 SU-25 및 MiG-29 최신예 전투기와 함께 T-72 주전차를 소련으로 부터 제공받고 있으며, 이를 모방한 생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전차는 東歐와 시리아 및 이라크에만 제공되었고, 아시아에서는 印度만이 유일하게 제공받았을 뿐이었습니다.

1950년 한국동란 초기에 1백50~2백여대로 추산되는 북한의 T-34 전차에 강타당한 우리로서는 북한의 전차증강이 실로 중차대한 관심사가 아닐수 없습니다.

현재 북한은 남한 전역에 대해 언제라도 동시공격할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즉시 전환할수 있는 공격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과 원산 以南의 전방에 지상군의 3분의2가 배치되어 있으며, 함정 및

전투기의 과반수가 즉각 공격할수 있는 태세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北의 스커드 미사일은 全州와 金泉을 사정권내에 넣고 있으며, 프로그 미사일은 水原線까지, 장거리砲는 수도권을 초토화시킬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과는 반대로 동서간에 고조된 데탕트 무드와 東歐의 민주화 물결 확산으로 인한 전쟁위협의 감소 및 이에 따른 미국의 국방예산 감축여론은 급기야 지난 4월 19일 美 의회에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제출되는 단계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시대적 상황은 우리들로 하여금 자주국방의 조기 확립을 가속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견된 제4땅굴에서 보듯이 북한 김일성 집단의 공산독재를 위한 한반도 적화전략 및 전술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으며, 東西 2백40km에 달하는 휴전선의 군사적 대치상황은 주요한 위협으로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적과 대항하여 국토방위의 최일선에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들이야말로 참다운 애국지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들 국군장병들에 대해 사기를 진작시켜주기 보다는「군사문화다」,「비민주적이다」하며 오히려 냉대시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시 대한민국을 침략하는 적을 맞이하여 이를 격퇴시킬 집단은 바로 국군뿐입니다. 우리는 평시 이들을 믿고 지원하여 비상시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殺身報國」할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의 구체적인 일환책으로서 본인은 범국민적 지원단체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우는 美 육군협회(AUSA)등 각종 지원단체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AUSA는 美 육군을 위해 1950년에 창설된 지원단체로서, 현재 군인과 민간인등 개인회원이 15만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찬조회원인 업체도 미국내에서만 3천6백개社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AUSA는 美 육군의 교육, 복지는 물론 예산획득과 장비현대화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예산확보를 위한 對국회 로비활동까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軍을 위한 민간차원에서의 이러한 성격의 지원단체는 아직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지난해에 제의한데 이어, 우리 육군을 위해 범국민적인(기업체나 국민중 희망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도모할수 있는 협회 성격의 육군 지원법인체 설립을 다시금 제의하고 싶습니다.

이는 국민과 군의 架橋로서 상호이해 증진과 유대를 더욱 강화시킴은 물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군사엘리트와 민간엘리트의 융합과 협력을 더한층 촉진시킬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